

HANWOONG & MIRI's

PRAYER LETTER

캄보디아에서 드리는 기도편지 (김한웅, 김미리 선교사)

2019-5호

단 한 명이라도 진정 회심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

쫄립쑤어.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저희에게 힘든 것은 캄보디아의 시골에 사는 것도,
교제할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을 향한
회심자 단 한사람을 얻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먹을 것과 병고치는 기적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을 원하는
군중과 다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회심자를 얻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 벽이
너무 높아 보일 때면, 저희는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안일하게 사역해온 모습들을
보여 주십니다.

기도 제목

1.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
도록.
2. 캄보디아어를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하
지 않고, 캄보디아어에 능통하여서 사람들
과 소통하고 사역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
록.
3.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에
만족하거나, 인원이 적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거
를.
4. 김미리 선교사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고,
캄보디아에서 출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5. 가온이가 유치원에서 캄보디아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친구들과 잘 사귄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6. 캄보디아 선교부가 하나되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캄퐁툼 사랑의 교회 예배당을 새로 칠했습니다.



옥동중앙교회의 지원으로 캄퐁툼 교회의 예배당을 새롭게 도색하고, 앞 마당에 나무도 심었습니다. 건축한지 6년정도 지나서 더러워진 외관이 깔끔해졌습니다. 캄퐁툼 “오랑”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피어른’ 사역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본교회 단기선교팀 방문



9월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본교회 청년들이 언동르싸이 교회를 방문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사역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15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레크레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배고프다면 라면도 끓여주고, 고장난 집을 고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 모든 접촉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인도하심을 따라 옳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러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저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게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캄보디아어에 더 능통해지고,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교회에만 머무는 사역이 아니라, 언동르싸이 마을 전체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응답, 감사 제목

1. 장년 예배에 출석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몇명이라도 꾸준히 예배에 출석하고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지 사역자 없이 김한웅 선교사가 캄보디아어로 설교와 찬양인도를 하고 있기에, 외국인이 구사하는 캄보디아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예배 드리러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지만, 일단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중입니다.

마을 어른들과 아주머니들이 계속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2. 태아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 가은이가 유치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유치원 가기 싫다고 많이 울어서 유치원 보내는 걸 늦춰야겠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만 있기에 심심하다며 학교가고 싶다고 하더니 잘 다니고 있습니다.